

뵤뵤: 섬김, 관대함, 신뢰

뵤뵤와 로마서 전달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울은 겐그레아의 뵤뵤를 신뢰할 만한 일꾼 또는 사역자이자 후원자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합니다. 뵤뵤가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견해는 이 추천에서 나온 널리 받아들여지는 추론이며, 편지에 명시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된 선교의 동역자

로마서 16:1-2는 뵤뵤가 겐그레아 교회에 속해 있다고 밝히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녀를 환영하고 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녀가 자신과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선교를 지탱한 관계망 안에 여성의 실제적인 섬김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가족사, 정확한 재산 규모, 책임의 전체 범위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참조: 롬 16:1-2

출처: letters

그녀에게 사용된 명칭이 보여 주는 것

그리스어 디아코노스는 일꾼, 사역자, 집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당시의 정해진 교회 직분을 가리키는지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후원자라는 설명은 상당한 도움을 가리키지만, 그 도움이 어떤 형태였는지 모두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실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녀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존중하며, 짧은 추천문에 현대의 직분 범주를 그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참조: 롬 16:1-2

출처: letters

편지와 함께 사람도 맞이하기

로마서 16장 첫머리의 추천은 뵤뵤가 편지 전달자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전달 경로나 그녀가 로마서를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실제 요청은 환영과 도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빛어진 공동체는 낯선 신자들을 실제적인 돌봄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섬김을 인정하며, 소통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성경 참조: 롬 16:1-2 · 롬 15:7

출처: letters

출처

-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https://ebible.org/web/>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phoebe>